

광주일보 13기 리더스아카데미-국회의원 박지원 '내란 청산은 특검으로, 국가대개혁은 정권교체로' 주제 강연

“DJ 정신으로 내란 청산·정권 교체 이루자”

‘윤석열 파면’ 힘의 원천은 5·18 정신이자 DJ 정신 민주당이 정권 교체하려면 호남서 DJ만큼 지지 얻어야



지난 8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 강사로 나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청산은 특검으로, 국가대개혁은 정권교체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이름 석 자에 원 우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지난 8일 광주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5층 대연홀에서 제1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의 세 번째 강연이 진행됐다.

뛰어난 입담으로 널리 알려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금 DJ라면, 박지원의 제안-내란 청산은 특검으로, 국가대개혁은 정권교체로’를 주제로 강의했다.

1942년 진도 출생의 박 의원은 1992년 민주당 전국 공천을 받아 제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DJ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과 문화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남다른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왔다.

제22대 국회까지 총 5선 경력의 호남 대표 정치인인 그는 12·3 비상계엄부터 최근 윤석열 파면 판결까지 4개월의 탄핵 정국을 돌아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성과 과제를 짚어내었다.

“윤석열 파면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그 힘의 원천은 5·18 광주 정신이자, DJ 정신이죠. 지금 DJ께서 계셨다면 ‘뱃꽃 탄핵’을 ‘장미꽃 대선’ 승리로 만들어야 완전한 국민 승리라고 하셔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박 의원은 “DJ는 항상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냈다며 ‘위기 속에서도 원칙 있는 리더십으로 IMF 위기 극복, IT 강국 도약,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실행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회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호남에서 DJ 시절과 같은 강력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 시스템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이재명이 책임지고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집권 3년이 민생과 경제를 망쳤고 대한민국을 퇴행시켰다. 매년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내놓은 ‘민주주의 지수 2024’ 조사에서 한국은 전년(22위)보다 10단계 추락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32위)로 분류됐다. 국가대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6월 3일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능한 정권 교체와 국가 대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협한 모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어낸 DJ와 같은 지도자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12·3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국회 본회의장 내부에서 지켜 잠든 모습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국회 출입을 금지하려 들던 경찰들한테 ‘여보세요! 내가 그 유명한 박지원이야’ 하고 악을 팍 썼더니 길을 비켜주더라고요. 계엄령이 해제되고 너무 지쳐서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사진이 찍혀서 그 덕에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담양군 수 재보궐 선거에서의 패배를 되새기며 혼을 바쳐야 한다. 광주 정신에서 내란 종식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호남의 정치적 역할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호남에서 DJ만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정권 교체는 어렵습니다. 광주와 호남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박 의원의 호소는 원 우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다음 강좌는 오는 15일 오후 7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이자 가메의 오너셰프, 안유성 명장의 강의로 이어진다.

“박정희 모가지 따러...” 귀순 공작원 김신조 목사 별세

1968년 박정희 대통령 살해를 목표로 이른바 '1·21 사태'로 불리는 청와대 습격사건을 일으킨 북한 무장공비들 가운데 유일하게 투항한 요원으로, 귀순해 목사로 활동한 김신조(사진) 씨가 9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서울성락교회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세상을 떠났다.

1942년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인민군 장교가 된 김씨는 26세이던 1968년 1월 21일 북한이 남파한 무장공비 31명 가운데 한 명이다. 박 대통령을 살해하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였다. 이들은 일어붙은 입진강 등을 건너며 청와대로 향했고 은코트에 무기를 감춘 채 1월 21일 밤 자하문고개로 진입할 당시의 통과를 통과하려다 비상근무중이던 경호의 불심검문에 발각됐다. 청와대까지는 불과 500m밖에 남지 않은 곳이었다.

청와대 진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군경의 소탕 작전이 벌어지자 김신조 일당은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쏘며 저항하다가 이내 빨뿔이 흩어졌다. 대간첩 작전 과정에서 당시 중로경찰서장이던 고 최규식 경무관이 순직하기도 했다. 이들을 찾기 위한 합동 수색은 경기도 일원에서 1월 말까지 전개됐으며, 이 과정에서 124부대 소속 31명 중 29명이 사살됐고 1명은 도주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김씨만 생포돼 귀순했다. 생포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임무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거친 말투로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습니다”라고 답한 일화는 유명하다.

김씨는 귀순으로 새 삶을 시작했지만, 낯선 한국에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사살된 무장공비 동료와 북한에 남겨둔 가족 등에 대한 죄의식으로 고통받던 그는 한때 술과 담배, 도박에 빠지기도 했다.

방황하던 그를 기독교 신앙의 길로 이끈 것은 아내였다. 김씨는 귀순한 지 3년째인 1970년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며 위로해주던 최정희씨와 결혼했으며, 1981년 아내의 권유로 성락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1997년 1월 21일 목사 안수를 받은 김씨는 2010년에는 한나라당 북한 인권 및 탈북자·남북자 위원회 고문으로 영입되기도 했다.

경기도 남양주의 성락성당교회와 서울 영등포구 서울성락교회 등에서 목회를 해온 김씨는 최근까지도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관덕정,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에 후원금



광주 관덕정(사투 백명목)은 지난 8일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설립된 (재)광주희망사다리 교육재단에 후원금 15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인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고등광기술연구원 미래우주국방융합연구본부장 이영락 ▲고등광기술연구원 광기반원천연구부장 이창열 ▲고등광기술연구원 광응용시스템연구부장 강철 ▲고등광기술연구원 초강력레이저연구부장 성재희 ▲고등광기술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기성근

◆뉴스1 광주전남 ▲부사장 서순규

생활 게시판

화촉

▲박주완·이영란씨 장남 철근, 이동명(전 광주일보 사진부장)·김덕자씨 차녀 현지양=12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화정1동성당

알림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부음

▲장성현씨 별세. 철은(우영기술단 상무이사)·승호(전남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은정·준기(GN건설 부장)·수정 씨 부친상, 전영선(사업가)·임동식(전주mbc전략기획사업부장)씨 장인상=별교상성병원장례식장 별교1분향소. 발인 11일 오전 09시. 061-858-445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0일(음 3월 13일 己酉)

36년생 재물이 크게 열렸으니 잘 활용해보자. 48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용감하게 응대해야 하느니라. 60년생 과감한 결단이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72년생 좋은 일이 있는 과정에서 마도 많이 끼는 법이다. 84년생 미연에 조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96년생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겠다. 행운의 숫자 : 09, 70

37년생 모든 일에는 예외도 있다는 것을 알아. 49년생 사방이 온통 오리무중이니 미혹에 빠질까 두렵다. 61년생 냉철하고 과감한 판단력이 강한 추진력을 갖게 하리라. 73년생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진행하면 승산이 있다. 85년생 굳이 감출 필요가 없으니 투명하게 임하라. 97년생 대박으로 인해 부가적 이익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14, 82

38년생 시기가 아니라 의지의 유무가 관건이다. 50년생 핵심 골자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62년생 가변적인 형국까지 예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순간적인 좌우가 큰 손실을 부르지 않을까 두렵다. 86년생 예정되어 왔던 돈은 들어올 것이니 조바심은 버려라. 98년생 귀인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6, 60

39년생 치우친 주관을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51년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63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겠다. 75년생 표준이 될 만한 전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87년생 특별한 의미의 징후들이 속속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99년생 확실한 안건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37, 96

40년생 핵심 가치를 좇는다면 반드시 실리가 따를 것이다. 52년생 획기적인 발전성이 있어 보이니 수용한다면 유익하리라. 64년생 실증이 난다고 해서 미룬다거나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76년생 대화로써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는 구도이다. 88년생 강한 기운이 모아지고 있으니 순조로울 것이다. 00년생 매사가 상대적임을 알아. 행운의 숫자 : 39, 95

41년생 생각의 차이에 비롯된 바가 크다. 53년생 초심으로 일관한다면 기쁨과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65년생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77년생 충분한 의사 타진이 선행되어야 폐해가 따르지 않는다. 89년생 마음에 흠잡지 않고 하더라도 대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01년생 철저히 대비해야만 이를 수이니라. 행운의 숫자 : 43, 55

42년생 크게 감동 받게 될 것이니라. 54년생 평시에 우산을 준비해 두어야 우기에 대비할 수 있다. 66년생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 78년생 우려하여 왔던 바는 아니니 부담감을 떨쳐버려도 된다. 90년생 원인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02년생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00, 83

43년생 임시변통적인 처리는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55년생 정제된 관습사가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니라. 67년생 순리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79년생 약간만 뒤를 돌아본다면 이해하게 되리라. 91년생 결정을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03년생 행편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할 이따다. 행운의 숫자 : 02, 50

44년생 가변적인 모습이니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 56년생 불굴의 투지로 최선을 다 한다면 반드시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68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80년생 후회를 할 때는 이미 늦다고 봐야 한다. 92년생 내버려 두도 상관없다. 04년생 실제로 접해 보기 전에는 속단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7, 61

45년생 실정을 보류하고 자중하며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57년생 전방위적인 안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69년생 고민하지 말고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81년생 시종 일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절대로 무리하지 말라. 93년생 수심이 깊으므로 건너야 할 바가 필요하다. 05년생 인기유연에 능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1, 59

46년생 기준과 통념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58년생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기막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70년생 겉새를 무시하지 말고 저변을 돌아보는 것이 기반을 튼튼히 하리라. 82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접하게 될 수다. 94년생 맹점을 보인다면 흥의 원인이 되리라. 06년생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1, 90

47년생 소중한 인연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59년생 흐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 71년생 치밀하지 않다면 뒤탈이 생길 여지가 있다. 83년생 태평성대의 길성이 비추고 있으니 매사가 길하리라. 95년생 재복이 저절로 찾아올 수도 있다. 07년생 급속스럽게 변화하는 양상이다. 행운의 숫자 : 33, 65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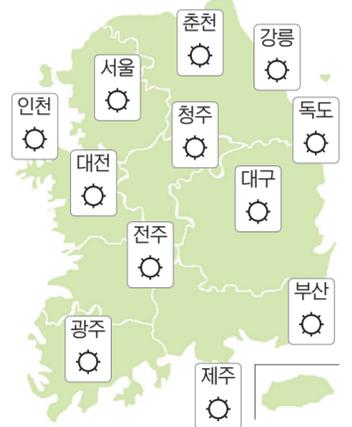
해돋이	06:07	달뜨기	16:35
해질	19:01	달짐	04:46

전남 동부 대기 건조주의

오전부터 차차 맑아진다.

광주	맑음	12/21	보성	맑음	10/21
목포	맑음	10/15	순천	맑음	11/23
여수	맑음	12/18	영광	맑음	9/17
나주	맑음	10/20	진도	맑음	9/16
완도	맑음	11/20	전주	맑음	12/19
구례	맑음	10/22	군산	맑음	9/17
강진	맑음	11/21	남원	맑음	10/21
해남	맑음	10/19	흑산도	맑음	9/15
장성	맑음	10/20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1.5	0.5~1.0		
	면바다(북)	1.0~2.0	1.0~2.0		
남해서부	앞바다	0.5~1.5	0.5~1.0		
	면바다(서)	0.5~1.5	0.5~1.5		
	면바다(동)	1.0~2.0	1.0~2.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57	00:40
	18:24	13:08
여수	01:36	07:56
	13:59	20:15

◇생활지수

미세먼지	보통
------	----

◇주간 날씨

	11(금)	12(토)	13(일)
9/23			
14(월)	15(화)	16(수)	
7/15			
6/16		7/20	

☎ 010-9790-8237